# 완도군 역도실업팀, 전용 훈련장 생겼다

**착공 4년 여 만에 훈련장 건립**
**차세대 역도 유망주 미래 밝혀**

완도군의 유일한 실업팀인 완도군청 역도 팀의 오랜 숙원인 전용 훈련장이 완공되어 차세대 역도 유망주 발굴은 물론 국내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1월 창단된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의 전용 훈련장은 완도 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근에 지상 1층(훈련장, 체력 단련장), 지상 2층(사무실) 규모로 총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지난 3월 13일 준공 4년 여 만에 전용 훈련장을 갖게 됐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감독 허 진)은 선수 4명(완도출신 1명)에 감독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018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금3, 은4, 동2),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금4) 등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완도군을 알리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도실업팀 허 진 감독은 18일 "그동안 전용 훈련장이 없어서 완도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해 왔는데 전용 훈련장이 생겨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하여 완도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훈련장 개장에 적극 지원해준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좋은 훈련장이 생긴 만큼 올해 각종대회에서 선수들이 한층 더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 인천시, 유원지 등 300개소 위생점검

**봄나들이 철 맞아 식품안전 확보 만전**
**보관기준 준수 등 식중독 예방 힘써**

인천시청.

인천시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시민의 이용이 증가하는 유원지, 놀이공원, 공항 등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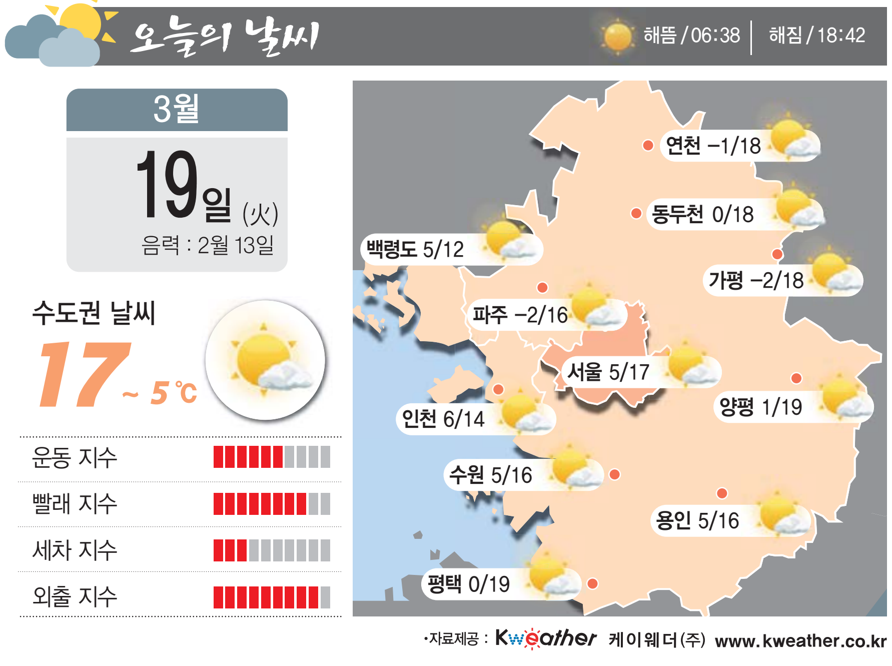
이번 점검은 유원지, 놀이공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점과 햄버거 및 도시락 프랜차이즈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시 및 군·구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며, 햄버거와 도시락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행위 ▲조리장, 판매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기온상승과 더불어 식재료 보관·조리·판매 등 취급시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심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사상생도시 시-자치구 공동협약12)

## 광주시-5개 자치구 뭉쳤다

# '노사상생 도시 광주' 공동협약

**"현대차공장 협약 계기로 첫 걸음"**
**협약 실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 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의기투합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8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시와 5개 구청은 "지난 1월14일 전국 최초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사상생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며 "현대차와의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5개 구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공동 추진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상생 프로그램 개발 협력 ▲노사갈등 발생시 평화적 해결 노력 ▲노동자 존감 회복 및 기업육성 시책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협약 이행을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체계된 협약은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우선 시와 5개 구청이 앞장서겠다는 결의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산하기관 및 기업 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서 설명회**
**2년간 2억 지원… 20개사 선정**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참여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 기준 3년(2016~2018년)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기업 가운데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1% 이상(3년 평균) ▲고용증가율 5% 이상(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 5% 이상(3년 평균), 4개 기준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 전략 수립', '중장기 R&D 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등 5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별로 연간 1억 원, 2년간 최대 2억 원(자부담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체계적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라남도는 신청 기업에 대해 시군에서 자격 요건 등 서류심사를 통해 도에 추천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2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남형 강소기업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어 지원 프로그램 수행방법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희망기업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기업이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필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아' 추가모집

**김제시, 체감가능한 일자리 확충 힘써**
**9개 기관에서 일할 참여자 9명 모집**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아(Aria)'추가 모집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민간취업연계형 '아리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까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하여 9개 기관에서 일할 참여자 9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된 인원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하게 된다.

지원 자격으로는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화)부터 25일(월)까지 7일간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청년창업담당(540-3338, 3995)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리아(Aria)'라는 사업명은 선율이 아름다운 곡조와 공기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 이탈리아어에서 착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노래 선율과 같은 청년일자리 창출 의지를 담고 있다.

/전북 김제=봉채영 기자

**정읍시**

#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읍시가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군·농어촌도로 17개 노선 9.2㎞를 확·포장한다.

시는 군도 6개 노선 2.1㎞,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7.1㎞를 확·포장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관청~주산선(군도 4호) ▲승부~반곡선(군도 8호) ▲마태~입점선(군도11호) ▲상산~선동선(군도12호) ▲진흥~오주선(군도 13호) ▲육리~상서선(군도20호)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상두선(신태인309호) ▲신포선(신태인311호) ▲분덕선(태인305호) 등을 실시한다.

/전북 정읍=봉채영 기자